

경과보고

가톨릭 병원협회 창립30주년경과보고

김 선 무

(한국가톨릭 병원협회 사무총장)

1967년 가톨릭계 의료기관들이 의료사업을 통하여 교회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본협회를 발족한지도 어언 30돌을 맞이하여 이제 장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가톨릭 병원들간의 친목을 비롯하여 의료사업에 있어서의 협력, 세미나를 통한 의견 교환과 정보 전달에 힘써온 보람이 있어 서로의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었고, 또한 협회존립의 의의를 모두가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매년 봄과 가을에 개최한 58차례 세미나는 병원사목, 병원관리, 의학윤리 및 호스피스활동 등 가톨릭 병원들의 공동 관심사가 주제가 되어 여러 사람들의 공감을 받았습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 입니다. 현재 천주교회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병원 24개, 의원 9개 모두 33개이고, 총 병상수는 약 1만개로 우리나라 전체 병상수의 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0명의 의사, 5,000명의 간호사등 모두 15,000여명의 종업원이 교회 의료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협회는 그간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기념 개안 수술사업, 나 사업, 결핵 사업, 행복한 가정운동, 해외 의료봉사, 자선 진료 및 의료기술 협력사업에 주력하여 가톨릭 의료사업의 고유함을 부각시키는데 힘써왔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협회활동에 참여하는 목적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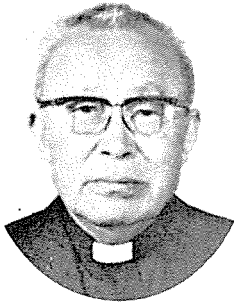
의료활동을 통하여 사랑을 구현하는 방법을 의논하여 실천을 서로 고무 격려하고 같이 손 잡고 협조하는 나눔의 현상이 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협회 창립 30주년을 맞아 우리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병원협회가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기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요 연혁 및 활동보고

- 1973년 2월에 본협회에 행복한 가정연구회를 설치하고 각병원에 가족계획 상담실을 두고 가톨릭 가족계획을 지도 보급하고 있으며,
- 1983년 5월부터 한국천주교회 200주년 기념 무료 개안수술을 주관하여 산하 가톨릭 의료 기관에서 저소득 실명자 1,800여명에게 빛을 찾아 주었으며,
- 1988년부터 형제자매의 협력정신에 따라 한·일 가톨릭 의료기술협정을 맺고 의학연구와 기술 습득을 위한 인력 교류를 하고 있으며,
- 1989년부터 남미에쿠아도르, 아프리카 케냐 벽지에 의약품, 의료기재 지원과 의료팀을 파견하여 원주민 진료를 실시하였고 금년부터 몽골에 대한 의료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역대 가톨릭병원 협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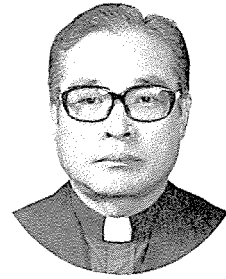
- 1967년 9월 22일 가톨릭 병원 대표 23명이 가톨릭의대 강당에 모여 창립총회를 가지고 초대 협회장에 양기섭 신부님, 총재에 안 제오르지몬시놀 주교님을 추대하였습니다.
- 1968년 3월에 제2대 협회장에 유수철 신부님이 취임하였고,
- 1973년 11월에 제3대 협회장으로 김창렬 주교님이 취임하였으며,
- 1983년 12월에 제4대 협회장으로 김대군 신부님이 취임하였고,
- 1996년 9월에 제5대 협회장으로 이성만 신부님을 모시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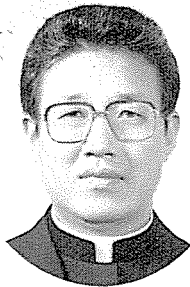
초대 양기섭 신부



제2대 유수철 신부



제3대 김창렬 주교



제4대 김대군 신부



제5대 이성만 신부